

현대에는 “차타레이 연인”은 없다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

“차 타레이 연인”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D.H.로렌스는 1885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나이 43세, 이 책이 발표되었던 1928년 무렵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성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라서 이 소설이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출판이 거부되었다.

책의 내용은 전장에 나갔던 차타레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돌아온다. 발기가 안 되니 부부관계가 자연히 멀어지고 젊은 부인은 육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이야기이지만 그 묘사가 너무 선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그 당시에는 출간을 하지 못했다.

로렌스 탄생 100주년인 1985년경부터 우리나라 비뇨기과 일각에서는 성기능 장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눌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로렌스는 성을 통한 생명의 찬가를 노래했지만 비뇨기과 의사들은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를 통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한 성을 통한 생명의 찬가를 예찬했다.

하반신 마비가 되면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발기가 되지 않는다.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훈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현재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하기야 정상인 보다는 여러 가지 번거롭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전혀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의 치료는 심인성일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카운셀링을 하고 행동요법으로 sensate focus exercise 등의 치료를 받으며, 기질적인 병이 있을 때는 당뇨병, 약물중독,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과음, 담배 등 원인을 제거하며 필요하면 비아그라와 같은 먹는 약을 사용하고 남성 갱년기 장애가 있을 때는 호르몬 요법을 병행한다. 매일 만보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혈압도 낮아지고 동맥경화, 심장병이 없어지고 성기능도 좋아진다. 골반근육 운동도 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좀 불편은 하나 음압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하여 뺄아 올려서 발기 를 시키고 실리콘 링을 조여서 혈액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발기를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주사를 놓는 방법은 프로스타그란딘 단독이나 3개 내지 4개를 혼합해서 쓰는 트라이 믹스 또는 쿠아드리믹스 등을 사용하며 음경 해면체 내에 아주 가는 30G의 주사를 놓으면 원인에 관계없이 약 90% 이상에서 5~10분 후 발기가 시작되고 보통 30~60분 발기가 지속되며 그 후 저절로 소멸된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한 두 번 실수 할 수도 있으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잘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만족 한다.

요도에 알프로스타딜이란 약물을 주입하는 요도좌제가 있다. 그러나 효과가 떨어지고 값이 비싸서 지금은 잘 쓰이지는 않는다. 수술을 받는 방법은 좌우 양쪽의 음경 해면체 속에 새끼 손가락 굵기의 음경보형물을 넣는데 여러 가지 기계가 다양하게 있고 막대기 같은 것은 손으로 구부렸다 펴다 하는 재질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은 음낭 안에 펌프의 손잡이를 넣고 필요할 때는 펌프를 작동시켜 음경 안의 막대기에 액체를 공급하여 발기를 시키고 필요없을 때는 반대로 펌프를 하여 확대된 음경을 가라앉게 한다. 그러나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때 시행한다.

한국 사람들은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민간요법을 선호해서 아무거나 좋다는 것을 마구 사용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많고 특히 정력제라고 해서 곰발바닥이나 뱀탕, 녹용, 보신탕 등을 마구 먹어대는데 심리적으로 먹으면 좋겠거니 하는 플라세보(위약)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동맥경화나 심장 등에 문제가 생겨 큰일 내는 경우도 많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여러 가지 정보가 인터넷에 실려 있고 조금 노력만 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기능 장애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면 정확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PPFK**